

'문화관광테마매거진 전주시대' 1호 발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전주만의 매력 홍보 책자에 담아... 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전주시는 올해 새롭게 기획한 '문화관광테마매거진 전주시대' 첫 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대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전주를 찾아오는 방문객과 타 지역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안내하는 품격 있는 홍보 책자이다.

이번 첫 호는 '궁 안 왕의 정원', 즉 '왕이 거니는 정원'이라는 뜻의 '궁원(宮苑)'을 테마로,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였던 왕의 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음식 등의 콘텐츠를 소개한다.

세부내용은 '위대한 빛', '놀라운 밤', '온전한 삶'으로 구성했고, 전주부성길·오목대·경기전 등 웅대한 전주의 천년 역사, 여름밤의 빛나는 야경과 전주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전주시 문화관광테마매거진 전주시대 첫 호. 이번 첫 호는 '궁원(宮苑)'을 테마로, 왕의 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음식 콘텐츠를 소개한다.

마실길·축제·문화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도심 속 푸른 휴식처로 건지산 편백숲, 아

중호수, 덕진공원 등 전주의 대표 힐링 명소를 담았다.

특히, 450년 전 전라감사로 부임했던 미암(眉巖) 유희춘의 일기를 바탕으로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 보는 시간여행은 읽는 재미를 더했고,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했던 주한미국공사 조지 클레이튼 포크가 일기에 소개한 관찰사 밥상은 맛의 도시 전주의 연원을 알려준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전주시대는 전주가 가진 숨은 매력을 찾아 테마별로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매거진"이라며, "전주시민에게는 자부심을, 방문객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주는 테마 책자를 제작하여 깊이와 결을 갖춘 문화관광도시 전주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 위케이션 대상지역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추진 계획·콘텐츠 융복합 위한 아이디어 발굴 위해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전북 위케이션 대상지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대표 카셰어링 기업 쏘카, 캠핑카 대여 플랫폼 기업 차놀라 전북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대상지역(전통문화형 전주, 해양휴양형 군산·부안, 산악휴양형 무주)내 관광사업체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8월 전북 위케이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숙박, 외식, 체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위

케이션에 대한 추진 계획과 지역 내 사업자들이 보유한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전북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숙박, 식사, 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또 전북도는 숙박 및 체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전북 위케이션 홈페이지는 오는 16일 오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주)조이의 박진만 대표



는 "위케이션을 통해 평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전환, 그리고 이를 통한 생활인구의 증대에 위케이션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콘텐츠팀(063-230-747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 옷칠 목공예품 전시회 '옷이 피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남원시가 주최하고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주관한 남원 옷칠 목공예품 전시회(전시명: 옷이 피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

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으며, 남원 관내 작가들의 우수 작품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역대 수상작 중 하이라이트 작품을 더해 18명의 작가의 특색있는 작품 29점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춘향 홍보대사와 함께 남원 옷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비롯한 시의 옷칠 목공예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달 31일에 열린 개막행사에는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정수와, 나전장 최상훈 선생 등과 전시작품을 관람하며 전통문화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등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회에서도 남원만의 특색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본 전시를 주관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참석하신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 개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임시정부 활동상 20점 사진으로 소개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은 1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 -광복, 되찾은 빛'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의 협조로 개최되는 순회전시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20점의 사진으로 소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독립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다. 이후 1945년까지 27년간 주권 자치를 실현하여 항일운동의 대표기부로 활약했다.

사진 자료는 △임시정부 청사,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정부 국무위원, △대한교민단 추최 3.1절 기념식, △파리강화회의 대표단, △윤봉길 의사의 한인애국단 입단 등 임시정부의 위치와 조직은 물론 관련 인물과 활약상을 알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배치했다.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인 구암동산에 건립된 기념관은 연간 다양한 기획전시와 강좌를 개최해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고 있다.

기념관 1층과 2층에는 3.1운동의 확산과 군산의 항일운동사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3층 체험교육실에는 태극기 만들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자 헌신한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기구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재고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특별 할인 이벤트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기념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료 60% 할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 기념, 특별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전북예술회관 4층 공연장에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 관람료 6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공연 관람 시 60%(R석 12,000원, S석 8,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할인은 타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예매, 전화예약 또는 현장 모두 가능하다.

예술회관운영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잼버리 행사를 통해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도민

들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잼버리 개최를 기념하고자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잼버리장을 찾고 아울러, 전북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브랜드 공연도 함께 관람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랜드공연은 지난 6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수~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토요일 오후 3시에 각각 진행하며, 티켓은 '티켓링크'와 '네이버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